

#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 의미와 시사점

강동완(동아대학교)·문다혜(이화여자대학교)

## 논문 요약

김정은은 모란봉악단을 통해 ‘열린 음악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2012년 7월 김정은에 의해 결성된 모란봉악단은 파격적인 시범공연 이후 북한의 중요 행사와 기념일의 축하공연을 주도하였고 현재는 북한 문화예술분야의 ‘모범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공연은 2014년 9월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이다. 이 공연은 이전의 모란봉악단 공연과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의 창작곡으로만 구성되었으며, 특정 행사를 기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신작음악회에서 발표된 노래와 공연구성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한 단면을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란봉악단이 신작음악회에서 선보인 신곡들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작음악회의 신곡과 공연구성이 의도하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체제의 특성을 연계하여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번 공연에서 발표된 곡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찬양과 충성맹세를 담은 곡 둘째, 당의 정책을 반영한 곡, 셋째, 북한체제 결속력 향상을 위한 곡, 넷째, 북한의 혁명투쟁을 상기시키는 곡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란봉악단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은 물론 북한 정치와 문화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모란봉악단, 음악정치, 김정은 시대, 북한문화예술, 북한사회, 신작음악회

## I. 서론

2012년 7월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된 모란봉악단은 북한의 의미 있는 기념일이나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각 공연 때마다 행사 성격에 맞는 노래로 공연무대가 구성되었고 정치적 의도를 담은 신곡도 발표하였다. 음악정치로 대변되는 북한체제에서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기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창이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문화, 정치, 경제 등 각각의 하위체제끼리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분야에서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라 현재는 김정은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모란봉악단 공연에는 북한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로동신문에서는 “모란봉악단이란 단순히 예술단체의 명칭이 아니라 선군시대 창조와 변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고 말한다.<sup>1)</sup> 그만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분석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sup>2)</sup>

2014년 11월 김정은이 42일간의 잠적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서도 김정은의 40여 일간의 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는 김정은의 행보를 둘러싸고 많은 추측들이 이어졌다. 이에 김정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2014년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공연은 특정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면서 이전 공연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란봉악단 공연은 “당창건 기념일 축하공연”, “전승절 기념 축하공연”, “신년 축하공연” 등 특정한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연으로 이루어

1) 『로동신문』, 2014년 6월 28일.

2)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나라경제』 제14권 제10호, 2012, pp. 14~23.

졌다. 하지만 이번 신작음악회는 별도의 행사가 아닌 제목 그대로 지금까지 공연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혀 다른 곡들과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작음악회에서 발표된 노래 내용과 공연구성 등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한 단면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란봉악단이 신작음악회에서 선보인 신곡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이 의도하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체제의 특성을 연계하여 살펴본다.

북한문화예술 분야 연구는 단순히 문화예술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시각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예술로 선전선동과 공식담론을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은 이전 김정일 시대와 차이점을 보이며 현재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시기로 인해 김정은의 문화예술 연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북한 문화예술분야 연구의 진척을 위해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란봉악단 공연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 1. 북한의 음악정치와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

음악과 정치의 관계는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음악에 있어 민족성, 인민성, 혁명성을 강조하여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sup>3)</sup> 김정일의

『음악예술론』<sup>4)</sup> 과 『주체문학론』<sup>5)</sup> 에서는 주체음악의 특징을 인민과 대중성을 기본으로 하며 민족성과 사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기본 뼈대가 김일성이 언급한 음악예술론과 같다. 음악정치는 김정일 시대인 2000년에 전면화 되었는데 그에 영향을 미친것은 대내외 배경과 김정일의 경험이다.<sup>6)</sup> 북한은 1990년 이후 국제사회변혁과 함께 경제위기가 심화되었고 국가 통제시스템의 약화로 정권 결속력이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은 1970년대를 보낸 선전선동부에서의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을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선택 한 것이다.

북한에서 음악은 '정치의 산물'<sup>7)</sup>로 표현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sup>8)</sup> 기인하여 북한 지도부는 문화 활동에 개입할 수 있기에 음악 또한 '정치의 산물'임이 당연하다.<sup>9)</sup> 또한 북한 문화예술은 정치나 경제 등과 같은 다른 하위체제와도 결합되어 있다.<sup>10)</sup> 모란봉악단을 통해 본 김정은의 음악정치 역시 이러한 맥락이 이전의 음악정치와 동일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기존의 음악정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음악과 형식을 추구해야만 했다. 불안한 대내외 정세와 더불어 통제에 한계가 있는 외부정보와 황색바람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음악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인 인민들의 수준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그리고 인민들의 '수준높은

4)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  
 5)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6.  
 6)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제1호, 2007, pp. 51~52; 전영선, "김정은의 문화정치." 북한연구학회학술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4, pp. 145~158.  
 7) 김강혁, "정치와 음악의 호상관계." 『조선예술』 1999년 11호, p. 9.  
 8) C. V. James,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pp. 130~131.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 과정에서 레닌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받았다. 그러나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명칭으로 정착된 것은 1932년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명명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9) 양정훈, "북한 통치체제의 속성과 문화예술." 『통일전략』 제9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p. 320.  
 10) 이우영 편, 『북한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19~21.  
 11) 강동환·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 339~390; 『한류, 북한을 흔든다』,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p. 83~159.

3) 배인교, "북한음악과 민족음악: 김정일 『음악예술론』 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8호, 2011, pp. 76~97.

요구'를 반영한 듯 모란봉악단은 창단이후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예술 공연으로 김정일의 음악정치와 다름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의 혁명적 노선을 음악을 통해 인민에게 주입했다면 김정은은 일방적 주입이 아닌 기존의 북한 음악 공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정치를 구현했다. 조선신보에서는 이를 '열린 음악정치'로 표현했다.<sup>12)</sup> 김정은의 음악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인 모란봉악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모란봉악단 공연을 한번 관람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모란봉악단은 첫 공연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여 거침없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지키고 있다. 로동신문은 모란봉악단이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려는 북한당국의 사상전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그리고 『조선예술』에서는 '우리식의 독특한 새로운 경음악단'이라는 표현으로 모란봉악단을 평가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sup>14)</sup> 또한 모란봉악단의 훌륭한 공연의 탄생은 '사상적 각오에서 나온 창조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한다.<sup>15)</sup> 김정은의 '열린 음악정치'는 김정일의 음악정치를 계승해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면서도 모란봉악단으로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2. 모란봉악단공연의 구성과 시기별 공연 특징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인 1회차(2012년 7월)부터 현재 신작음악회 공연까지 각각 공연성격, 공연구성, 선곡특징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회차 공연인 시범공연 때부터 2013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공연까지의 14회차 공연까지 그리고 2014년 3월 15회차 컴백공연부터 19회차 까지, 마지막으로 신작음악회로 불리는 20회차 공연 등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표 1> 모란봉악단의 구성과 시기별 공연 특징

회차	시기	특징
1회차 - 14회차 공연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시범공연 때부터 주요 행사일에 공연
15회차 - 19회차 공연	2014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컴백공연으로 노래선곡과 가수 구성이 달라짐
20회차 공연	2014년 9월 이후부터 2015년 4월까지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노래와는 다른 노래발표

1회차부터 14회차 공연까지 북한의 주요 행사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공연에는 반드시 김정은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예를 들어 전승절 기념일, 당창건 기념일,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축하공연, 김일성종합대학 설립기념일, 신년음악회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모란봉악단은 화선공연을 두 차례나 개최했다.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 시 직접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을 가졌다.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으며 그의 곁에는 항상 최룡해가 옆자리를 차지했다. 14회차 공연 기간 중 수행원을 보면 단연 최룡해가 가장 횡수가 많다.<sup>16)</sup> 김정은의 현지지도시 대동하거나 공연관람 시 배석자, 주석단 배치 등은 북한 권력서열을 가늠하는 요인이다.

모란봉악단은 2014년 10월 공연을 끝으로 장성택 처형시기 약 5개월

12) 『조선신보』 2012년 7월 12일.

13) 『로동신문』 2013년 7월 6일.

14) 김현아, "우리 식의 독특한 경음악단을 꾸려주시어." 『조선예술』 2015년 1호, p. 8.

15) 리설향, "모란봉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은 장작가, 예술인들이 따라 배워야 할 좋은 모범." 『조선예술』 2015년 1호, p. 63.

16) 모란봉악단 공연 시 김정은과 함께 배석한 참가자의 횡수를 통한 권력지형 분석은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 180호, 2014, pp. 72~73 참조.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5회차 공연을 컴백공연이라 부르는 이유는 5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공연은 이전 공연과는 전혀 다른 노래와 무대형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을 통한 선전선동과 사상전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노래 가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컴백무대를 통해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내 권력변화 양상과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지도자의 특정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15회차 컴백공연부터 시작해서 19회차 공연은 새로운 곡들과 형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삼지연과 양강도 공연 등 지방공연까지 개최되었다. 이 기간 중 주요한 특징은 이전 14회차 공연까지 악단의 핵심멤버였던 약장 선우향희와, 공훈배우 류진아가 장성택 숙청 사건과 연루되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후 20회 공연은 이전 공연과는 전혀 다른 곡들로 구성되어 일명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모란봉악단은 공연 때마다 특정 행사와 성격에 맞는 노래들로 구성되며, 신곡들을 한 두곡씩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20회차 공연은 공연이름 자체가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을 달고 이전 공연과는 다른 구성과 가수, 내용 등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모란봉악단 특징 분석에 있어 또 다른 시기구분으로 의미가 있다.

### 3. 선행연구

북한의 음악정치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sup>17)</sup> 성과를 제외하고 모란봉악단만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2012년 파격적인 시범공연 이후 주목을 받으며 북한

의 공식매체를 통해 언급되는 모란봉악단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음악정치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배인교는 김일성시대에 창립된 국립교향악단과 김정일 시대 말기인 2009년에 창립된 은하수관현악단과 김정은 시대인 2012년에 창립된 모란봉악단이 같은 제명으로 연주했던 2012년 《조선로동당창건67주년기념음악회》를 대상으로 2012년 북한음악단체의 공연양상을 검토하면서 북한 음악공연내용의 변화양상과 북한음악정치의 허실을 추론하였다.<sup>18)</sup> 이 연구는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김정일 시대의 음악정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김정은의 음악정치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한승호와 김수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새해 첫 공식행보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2013년 새해 첫 공식행보인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에서 북한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 동향을 예측했다.<sup>19)</sup> 이 연구는 북한 신년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신년음악회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치적 메시지로 연결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완과 박정란은 모란봉악단을 통해 공연예술의 변화를 해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sup>20)</sup> 이 연구는 모란봉악단의 결성부터 14회차 공연까지의 각 공연별 특성을 분석하고 공연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 북한주민 면접을 통해 모란봉악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는 모란봉악단의 공연회차별 특성과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거나 특정 공연(신년경축공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작음악회라는 명칭의 의미에 주목하여 지금까

17) 이현주, "북한음악의 변용과 철학사상적 근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 1~337, 최영애, "북한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6호, 2011, pp. 169~193.

18) 배인교,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3호, 2013, pp. 283~310.

19) 김수민·한승호,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pp. 247~264.

20)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서울: 선인, 2014, pp. 11~193.

지 모란봉악단 공연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신작음악회와 이전 공연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신작음악회의 신곡 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 III. 신작음악회 공연내용 및 특징

#### 1. 신작음악회 개요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이 새롭게 창작형상한 곡을 선보이는 신작음악회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참석했으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최룡해, 김양건 로동당비서와 김여정,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을 비롯해 군대와 사회의 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문화성, 문예총중앙위원회,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작가들, 예술교육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이 함께 신작음악회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sup>21)</sup>

이번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 공연은 약 5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공연은 총 13곡의 노래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9곡이 신곡이었다. 모란봉악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은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움의 하얀 쪽배》, 《만경대혁명학원교가》, 《그날의 15분》,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 《철렁아래 사과바다》,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대를 이어》이다. 지난 3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축하공연에서 선보인 신곡 《내 심장의 목소리》가 이번 신작음악회를 위해 편곡작업을 거쳤고 신작과 같이 새롭게 형상하여 창작했다. 공연의 한 파트인 경음악련곡은 《빛나는

조국》, 《조국찬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 총 3곡이다. 경음악련곡 역시 다양한 편곡수법과 내용의 수정단계를 거쳐 새롭게 창조되었다.

<표 2> 20회차 신작음악회 노래 목록

순서	곡명	가수	연주형태	창작
1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김설미, 리옥화, 라유미	여성3중창	신작
생략 <sup>22)</sup>	바다만풍가	김설미	여성독창과 방창	2014
2	그리움의 하얀 쪽배	박미경, 정수향, 김유경	여성3중창	신작
3	내 심장의 목소리	공훈배우 라유미	여성독창과 방창	2014
4	만경대혁명학원교가		여성중창	신작
5	그날의 15분	공훈배우 리옥화	여성독창	신작
6	빛나는 조국		경음악련곡	1947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1948
	조국찬가			2013
7	고백	공훈배우 라유미	여성독창과 방창	신작
8	세월이야 가보라지	공훈배우 리옥화	여성독창과 방창	신작
9	철렁아래 사과바다	김설미	여성독창과 방창	신작
10	근위부대자랑가		여성중창	신작
11	승리는 대를 이어		여성중창	신작

#### 2. 신작음악회 신곡의 특징

##### 1) 김정은 원수님의 찬양과 충성맹세

-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고백》 《그리움의 하얀 쪽배》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의 가사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

21) 『조선중앙통신』 2014년 6월 5일.

22) 신작음악회 2번째 곡으로 공연했지만, 조선중앙TV 녹화방송에서 편집되었다.

충정을 담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래 후렴에서 나타난 ‘김정은 동지’라는 가사는 수령을 찬양하는 일반적인 북한음악의 정치색 성격과 함께 김정은 개인을 찬양하고 충성심을 고무한다. 또한 이 곡은 개인 찬양과 충성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풀어내어 정치사상음악의 통속성을 추구했다는 특성이 있다.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가사  
 1절 내 나라 은금의 강산 화장한 방방곡곡에 / 은혜론 그 손길 어리어 꽃피는 꽃도 많아라 /  
 즐겁고 희망넘친 우리의 생활 속에 /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2절 그 음성 곁에서 울려 누구나 마음 억세고 / 영명한 그 슬기 지니어 인민은 용감하여라 /  
 창조열 열정넘친 우리의 위훈 속에 /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3절 그 이름 높이 부르며 기적을 떨치는 인민 / 삼천리강산에 눈부신 강국의 축포 터지리 /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의 승리 속에 /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친근한 그 이름  
 후렴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심장/ 우러러 따르며 부르네 / 우리의 김정은 동지

이전에 김정일은 사상고취를 위한 음악정치의 일환으로 전자악단을 도입했다. 김정은의 모란봉악단은 김정일 시대의 전자악단인 경음악단과는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큰 특징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찬양곡이 집권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통속성을 추구하여 음악의 변형을 시도 했다.<sup>23)</sup> 새로운 형식의 음악공연으로 김정은 개인을 찬양하고 충성하자는 가사를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세대 변화와 경제난, 북한에 부는 황색바람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음악형태만으로는 충성심 함양을 위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sup>24)</sup>

《고백》 가사  
 1절 그누가 그누가 불려서 그 품에 안기랴 / 심장이 심장이 불타서 꿈에도 안기네 /  
 그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2절 그누가 그누가 떠밀어 이 길을 가는가 /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3절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그 이의 곁에서 /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심장의 고백 /  
 그 령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후렴 내 생명 다할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고백》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충성맹세의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전반적인 노래가사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지만 그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사 중에는 ‘누가 불려서’,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발적 충성에 의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결속력이 그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신곡의 공연형식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자막전광판에서 후렴부분의 ‘김정은 동지’를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동지’가 나오는 후렴부분의 자막 화면만이 카메라로 집중 조명된 점도 김정은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가사에서는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과 같은 예술적강조의 수법을 통해 인민들에게 친숙하고 누구나 즐겨 부를 수 있게 표현했다고 한다.<sup>25)</sup>

또 하나의 신작인 《그리움의 하얀 쪽배》 역시 앞의 두 노래와 같이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축원하는 지도자 찬양의 내용이다. 조선예술에서의 해석을 참고하여 노래가사를 분석해보면 문자 자체의 가사는 생활적이고 민족의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풍습을 표현하고 있다.<sup>26)</sup> 북한 주민이 들었을 때

23) 임경화, “북한 노래의 탄생-사회주의체제 형성기 인민가요 성립 고찰.”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pp. 327~352.

2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3호, 2009, pp. 81~101;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4, pp. 13~134 참조.

25)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26) 리은성,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올려져진 장쾌한 명작포성.” 『조선예술』

북한에서 의도하는 음악의 정치사상성 기능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데 북한이 정치사상적 음악을 친근하게 표현하여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움의 하얀 쪽배》 가사

1절 밤하늘의 반달아 하얀 쪽배야 / 어디로 어디로 너는 가느냐 / 대동강 출렁이는 큰 물결 타고서 / 이밤도 불밝은 당중앙 창가로 / 이 마음 짓고서 가도 또 가지  
 2절 전설도 아득한 하얀쪽배야 / 계수나무 그 향기 실고 가느냐 / 달나라 자장가 울리려 가느냐 / 세월의 빗바람 담아가 고생담던 / 당중앙 창가로 너도 가느냐  
 3절 그리움을 달래는 하얀 쪽배야 / 이밤도 우리소원 전하여 주렴 / 사랑의 그불길 어디서나 보이는 / 당중앙 창가에 닦을 내리고 / 축원의 우리 밤 아뢰어주렴

2) 당의 로선과 정책반영

- 《바다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나무》 《세월이야 가보라지》

2013년 6월, 김정일은 “선군혁명 영도의 상징인 철령 아래에 대규모 과수원이 건설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능력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사과바다가 펼쳐지게 되면 ‘철령아래 사과바다’라는 새로운 선경이 생겨날 것”<sup>27)</sup> 이라고 언급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은 ‘고산땅에 세계굴지의 대청춘과업을 펼칠 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있다고 한다.<sup>28)</sup> 2011년부터 북한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고산과수농장에서는 확장공사가 추진되었는데 당시 김정일이 고산에 직접 사과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고산과수농장의 부지 중심부에는 철령 16km라는 도로표식이 있다. 철령은 선군혁명영도의 상징이며, 사과바다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상징이다. 북한은 이것이 배합된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선군13경

2014년 11호, pp. 21. “《그리움의 하얀 쪽배》는 예로부터 전설도 많고 민족의 풍습과도 많이 연관된 밤하늘의 달과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불밝은 당중앙창가에서 인민의 행복을 가꿔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령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축원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27) 『로동신문』 2013년 6월 3일.  
 28) 『로동신문』 2014년 8월 28일.  
 29) 『조선신보』 2013년 8월 22일.

의 하나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태어난 첫 선경”이라고 의의를 부여한다. 또한 철령은 해발높이 677m로 오르내리는 32km의 길에 99굽이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이 노래의 배경이 된 고산땅은 땅이 질러 ‘진고산’, ‘바람세차 풍고산’이라 불리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과일을 먹이려고 애쓴 아버지 수령님의 염원을 실현하는 토대가 마련된데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즉, 이곳에 펼쳐진 사과바다의 정치적 함의는 북한에 위대한 선군정치의 생활력과 과거와 비교해 김정은 시대 오늘날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3년 7월 24일 고산과수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농장의 모든 과수원들에 사과가 땅이 꺼지도록 달리게 하여 철령 아래 사과바다에서 과일향기가 넘쳐나고 과일과도가 세차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sup>31)</sup> 2014년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며 농업과 수산업, 과수업 등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투쟁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제목에서부터 내용까지 김정은이 인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가사

1절 고산이 라 철령아래 출렁이는 과수바다 / 아름다운 백리과원 눈뿌리도 아득해라 / 가지마다 알알이도 구슬같이 맺힌열매 / 전선시대 무릉도원 전선시대 무릉도원/그림같이 황홀하오  
 2절 철쭉꽃 핀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 천만송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 /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속에 반발하여 / 원수님의 온정속에 원수님의 온정속에 / 열매되어 주렁졌소  
 3절 사과바다 물결위에 춤을 추는 갈매기나 / 사과바다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 천지개별 노래하는 선군세월 새 풍경아 / 고산땅이 꺼지도록 고산땅이 꺼지도록 과일대풍 안아오세  
 4절 철령아래 과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나 /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처와 목이 메네 / 장군님의 인민사랑 원수님의 꽃피주신/ 예가 바로 부흥하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 내 조국의 모습일세

30) 『동일신문』 2015년 6월 12일.  
 31) 『로동신문』 2014년 7월 24일.

신작음악회에서 모란봉악단은 민요풍의 노래에서 더 나아가 공연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민족성을 구현하는 시도를 했다. 《철렁아래 사과나무》 노래의 전주와 간주공간에 전통악기 팽과리 연주를 넣어 공연형식에서 민족성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언론매체는 “모란봉악단의 창조적인 시도의 기반에는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의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민족음악은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적재보이며 사회주의음악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바탕이다.》<sup>32)</sup>라는 김정은의 교시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즉,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 선보인 《바다만풍가》, 《철렁아래 사과나무》,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들이 창작된 것은 김정은의 교시를 반영한 것이다.

### 3) 북한체제 결속

—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조국찬가》 《만경대혁명학원교가》  
이번 신작음악회 공연에서 모란봉악단이 연주하는 경음악련곡은 총 3곡으로 구성되었다. 이 3곡은 조국에 대한 송가를 공통주제로 한다. 첫 순서 《빛나는 조국》의 감성적인 연주, 화면영상 이미지, 조명의 조화는 백두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국의 기상과 부흥을 표현하여 조국의 강인함을 전달하고 있다.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는 다가오는 인민공화국 창건 66돌 축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공훈국가합창단 창작실장 설태성이 “지난해 9월 우리가 창작한 노래 《인민공화국 찬가》를 친히 들려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노래의 곡은 좋는데 가사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한성이 있어 제목도 고쳤고 가사도 다시 썼다고 하시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합창단에서도 형상하고 모란봉악단에서도 형상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sup>33)</sup>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민공화국 찬가》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수정 과정에 참가해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모란봉악단에서 형상하라는 지도자의 교시에 따라 신작음악회공연에서 선보인 것이다.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가사  
1절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 새기밭 높이어 삼천만은 나섰다 /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2절 인민의 즐기 찬 힘 하나로 뭉치여 / 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웠다 / 조목도 나뭇기라 이날의 승리를/  
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다  
3절 오곡은 물결치고 증산은 빛나오리 /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 / 남북이 힘을 합해 원수를  
부시자 / 조선은 부강한 민주의 나라다  
4절 권리는 인민에게 최고회의 열어서 /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자 /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  
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후렴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 아 자유 조선 인민 공화국 / 해와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마지막 곡인 《조국찬가》도 설태성이 재창조했는데 그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천명한 인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철학에 기초하여 가사를 수정했다고 말한다. 이 곡 역시 김정은의 지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새로 창작된 《조국찬가》는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에서 공연 이후 북한의 모든 매체에서 선전되었다. 북한이 조국찬양노래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조국과 그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결속력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주민들에게 김정은 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공식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하위 담론으로 볼수있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독려하여 체제결속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국찬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32) 『로동신문』 2014년 5월 27일.

33)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34)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pp. 65-92.



《조국찬가》 가사

1절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어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2절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3절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4절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역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5절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후렴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한편,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유자녀들이 다니는 최고 엘리트 코스로 북한의 중추를 이루는 권력층이 졸업한 학교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여성중창 《만경대혁명학원교가》는 그러한 만경대혁명학원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낸 미래의 만경대아이들을 형상화했다. 공연무대연출을 살펴보면, 1절이 끝나고 간주화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사진이 연속으로 화면에 나타나며 관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의 정당성을 찾고 공신세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전이를 통해 지도자의 정통성을 찾고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유지 위한 권력엘리트간의 견제와 균형구조를 확립하고자 했다.<sup>35)</sup> 또한 만경대혁명학원을 노래한 이곡은 북한 주민이 김일성과 혁명영웅의 후대세대에도 충성해야함이 곧 조국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교가》 가사

1절 만경봉에 해돋이가 어려/ 그 별 밝게 빛난다/ 성스러운 빨치산 정신 / 가슴마다 우리 지녔다  
 2절 백두산의 피줄기를 이어 / 혁명가로 자라는 고향 / 그 자랑을 붉은 줄로 새겨진/ 우리모습 밝고 씩씩해  
 3절 우리들은 나아린 투사  
 후렴 혁명을 위하여 배우자 / 백두산 창조위업 빛내자 / 우리들은 주체위업 배워갈/ 만경대의 아들들이다

35)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2, pp. 11~13.

4) 투쟁과 혁명으로 본 역사의 정통성

- 《승리는 대를 이어》 《근위부대자랑가》 《그날의 15분》 《승리는 대를 이어》 여성중창으로 선보인 신작 《승리는 대를 이어》, 《근위부대자랑가》는 신작음악회의 종곡이다. 이 두 노래는 당의 영도, 지도자에 충직한 군대, 인민들의 투쟁정신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항상 승리를 새긴 ‘영웅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도 초에 북한은 핵 경제·병진노선을 표방하여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방향을 선포했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 포기압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난과 개발의 한계에 도래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병진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 핵에만 더욱 집중했다. 그리고 북한 내적 상황 역시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가 더욱 불안한 상태였다.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의 중지와의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핵 재난 방지를 위한 대남제의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진전은 없었다.<sup>36)</sup> 북한은 신년음악회를 전후하여 미군과의 군사합동훈련과 남한의 전단살포를 모든 매체를 이용해 비난했다. 국내·외적 긴장감과 위기감은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음악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훈배우 리옥화가 부른 《그날의 15분》의 가사를 보면 백두산, 빨치산, 항일혁명과 주체를 강조한 민족의 혁명음악과 투쟁음악의 성격이 분명히 보인다. 공연무대의 연출도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붉은 조명 아래 중앙의 대형화면에서 전쟁의 비극적 장면과 혁명의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백두산전경을 통해 민족주의로 단결하게끔 연결시켰다.

36) “빠리살포망동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여론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23일;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빠리살포놀음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2014년 9월 22일.

《그날의 15분》 가사

- 1절 오늘도 전화의 싸움터에 초침소리 울리네 / 가렬했던 351고지의 전장에 우리들을 세우네 / 만세높이 고지를 점령한 15분 / 원수를 무찌르던 멸적의 15분 / 아 그날의 15분 위훈이 무엇인가 말해주네
- 2절 전사들 생명도 바치면서 돌격로를 열었네 / 고지우에 람홍색 기발은 승리의 합성 높이 알렸네 / 목숨과도 같은 땅 되찾은 15분 /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빛내준 15분 / 아 그날의 15분 조국의 귀중함을 알게 하네
- 3절 영웅의 고지에 오늘은 우리가 섰다네 / 용사들이 빛내인 그 날의 승리로 긍지높은 이땅에 / 심장에 박동처럼 영원한 15분 / 수호자의 정신을 심어준 15분 / 아 그날의 15분 언제나 너를 안고 우리살리

《승리는 대를 이어》에서 북한은 미국을 ‘원썩’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제를 짓밟은 승리의 투쟁과 더불어 모든 적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를 이어 싸워온 역사를 강조하면서 3대 세습과 빨치산 세대의 권력을 정당화했다. 가사에서 표현되어지는 ‘당과 수령의 령도와 함께한 전쟁영웅들과 군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표현들은 투쟁과 혁명에서 북한역사의 정통성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적, 투쟁적 음악은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악화로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될수록 강화될 것이다. 북한의 투쟁과 혁명의 노래는 북한의 정통성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승리는 대를 이어》 가사

- 1절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 원썩과 싸워이긴 력사의 길에 물어보라 / 미제의 성조기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 우리가 대를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 2절 조국의 산과 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 피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딸들 / 불멸의 그 위훈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 3절 성스러운 국기우연 태양의 빛발 눈부시다 / 그 해빛 백승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 정의의 보검으로 미제의 멸명을 선언할 /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후렴 자랑차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어라

3. 신작음악회 공연형식의 특징

1) 공훈배우 리옥화의 등장

장성택 숙청사건 이후 모란봉악단의 컴백공연(15회차)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공연을 거쳐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 축하공연(19회)까지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유연하게 재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작음악회에서 은하수관현악단 소속이었던 공훈배우 리옥화가 등장하여 노장연주가로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리옥화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이름》을 공훈배우 라유미와 김설미와 함께 부른 뒤 독창으로 《그날의 15분》,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불렀다. 리옥화의 영입을 3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모란봉악단에서 선보이는 민요풍의 노래들을 인민들에게 공인된 노장가수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전달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월이야 가보라지》 가사의 ‘검은머리 희었어도, 황혼기, 주름 깊은 얼굴, 여생길’과 같은 단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곡이 당의 온정속에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인생을 값있게 보내려는 노세대들의 사상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의 어린 모란봉악단 단원이 부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리옥화가 모란봉악단에 영입된 것이 초대가수이거나 지속적인 영입단원의 성격을 떠나 새로운 단원으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구성했다는

《세월이야 가보라지》 가사

- 1절 봄 시절은 멀리흘러 우리인생 가을인데 / 검은머리 희었어도 그시절이 푸르르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마음 늙을소나
- 2절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나 /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성성하오 / 선군세상 복을 누리 구심환갑 노래하니 /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마음 늙을소나
- 3절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생활 /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마음 늙을소나

사실만을 보았을 때, 기존단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기 위해 새 단원을 영입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예술인들에게 큰 자극이며, 김정일이 강조하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공연연출의 변화

무대배경이나 연출에서의 새로운 형식도 주요한 특징이다. 조선예술에서는 “무대연출가들은 모란봉악단공연에서 이룩된 화면형상성과 경험들을 깊이 연구하고 적극 따라 배워 최신과학기술성과들과 수단들을 도입한 무대예술작품들을 훌륭히 창조하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sup>37)</sup> 라고 주장한다. 이번 신작음악회에서 공연무대 같은 경우 기본 화면과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대형화면이 무대의 중앙과 양 옆에 위치했다. 시범공연에서도 화려한 무대조명을 선보였지만 공연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명기술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예술을 과학화하는 것은 현시대의 요구이며 당의 방침’이라고 밝힌 서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의 과학화를 강조하고 그것을 모란봉악단을 통해 구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로동신문과 조선예술에서도 모란봉악단이 무대연출에서 매년 ‘자기식의 매력’을 선보인다고 무대구성에 대한 글이 많다.

이번 신작음악회에서는 공연복에서도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입는 공연복은 공연내용 및 주제에 따라 선별되었다. 공연복도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전수단으로 활용된다.<sup>39)</sup> 예를 들어 지난 4월 16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에서는 공군복 차림으로 공연을 했는데, 김정은은 모란봉악단 단원들에게 “비행사들 앞에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비행복을 입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sup>40)</sup> 모란봉악단 가수들은 이전의 공연과 같이 치마를 입고 노래했지만, 선우향회를 포함한 모든 악단들은 흰색 바지를 입었다.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대형식 중 하나이다. 이전 공연에서 드림을 연주하는 단원은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혼자 바지를 입은 경우는 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모든 단원들이 공연복으로 바지를 입고 출연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란봉악단의 공연구성 중에서 항상 일정부분을 차지해온 <경음악과 노래연곡>이 이번음악회에서는 <경음악연곡>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발표되었다. 이전에는 연곡의 곡 중 하나를 선택해 주제곡을 설정하였다면 이번에는 3개의 곡을 모두 동등하게 두고 곡의 내용과 주제를 통일하였다. 공훈배우 라유미는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에서 선보인 《내 심장의 목소리》를 편곡하고 연주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신작이 아니더라도 편곡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면모를 선보인 것도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창조기풍의 성과’에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IV. 신작음악회 공연의 주요 시사점

##### 1.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모란봉악단의 신곡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던 세 곡이 눈길을 끄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곡은 《그날의 15분》이라는 노래로 “가렬했던 351 고지에 우리들을 세우네”라는 가사가 나온다. 주목할 점은 ‘351고지’인데 이곳은 6·25전쟁 당시 휴전 협정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남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흥미롭게도 이 351 고지를 지난 7월 14일 김정은 제1비서가 현지 지도하여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이 훈련은 남측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최전방에서 실시됐다.

37) 김철진, “모란봉악단공연에서 화면형상의 몇 가지 특성,” 『조선예술』 2015년 1호, pp. 60.

38)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39) 모란봉악단 공연 중 공연복의 변화 및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 1~129. 참조.

40) 현송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 토론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두 번째 곡인 《만경대혁명학원교가》 역시 김정은의 현지도와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지난 6월 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현지도 하었는데 당시 학생들의 뜨거운 환영속에 눈물을 흘렸다고 로동신문은 보도했다.<sup>41)</sup> 만경대혁명학원은 북한의 최고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로 항일유자녀와 전쟁영웅들의 유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이다. 북한권력의 실세로 알려진 최룡해 당 비서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다. 한마디로 북한권력의 핵심부가 모두 이 학교 출신인데 이 노래는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 번째 곡은 《근위부대자랑가》라는 곡으로 여기에는 “질풍처럼 달려 서울에 공화국 기를 휘날린 105땅크사단”이라는 가사가 눈길을 끈다. 이 곡도 김정은의 현지도 및 6·25전쟁과 관련이 있다. 가사에서 표현한 것처럼 ‘105 땅크사단’은 6·25전쟁 때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부대로 북한에서 큰 공을 세운 부대나 기관에 주어지는 최고영예인 ‘근위’ 칭호를 받은 부대이다. 김정은이 2012년 공식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현지도를 한 곳도 바로 ‘105땅크사단’이었다.

《근위부대자랑가》 가사

1절 노도로 질풍처럼 서울에 공화국 기발을 날린 / 무쇠철마로 소문난 근위105 땅크사단 / 미제의 오만한 상승의 사단과 장성들 포위섬멸해 / 세상에 명성떨친 용감한 싸움군들 근위 4보병사단  
 2절 바다의 섬이라 떠들던 미제의 침략선 중순양함들 / 통쾌히 수장한 해군의 영웅한 근위 2어뢰대 / 하늘의 요새라 뽐내며 기어든 미제의 공중비적들 / 가을의 락엽 만든 공군의 슬기로운 근위추적기련대  
 3절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떨던 / 멸적의 부대인 진격의 화살 근위 3보병사단 / 징벌의 포화로 정의의 총칼로 날강도 미제 무찔러 / 멸망의 함정끝에 처넣은 방위자들 근위 2보병사단  
 4절 광활한 격전장 누비며 진군해 혁혁한 진과 울리며 / 락동강 《불뢰의 방어선》도 깨버린 근위 6보병사단 / 험준한 산악을 폭풍처럼 넘으며 승전의 포성을 울려 / 적들의 진을깨 한 그 이름 자랑높은 안동12보병사단  
 5절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 /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기억된 자랑찬 근위부대들 /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진 / 그 이름 영원토록 후대들 가슴속에 굳지로 빛을 뿌린다  
 후렴 군기에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치리

41) 『로동신문』 2014년 6월 6일.

지금까지 모란봉악단 공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세 곡에 주목하는 것은 모두 김정은의 현지도를 칭송하기 위한 이상화 작업이라는 점과 함께 6·25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공공연히 2015년 성전을 거론하며 대남도발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신작음악회 공연에서 6·25전쟁을 상기하며 당시를 회상하는 관련 곡들 중심으로 노래를 선곡한 것은 분명 의미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2. 외부정보의 유입과 ‘수준 높은 인민의 요구’

최근 북한에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남한 따라하기 현상으로 드라마에서 본 스타일을 동경하며 한국산 제품이 인기리에 거래되기도 한다.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북한체제 균열의 틈새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철저한 통제와 단속을 하려 한다.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통제해 왔다.

하지만 시장과 단속원들의 압수물품 등의 재판매 등 비법적으로 유통되는 남한 영상물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단순히 남한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산 상품의 유통과 계층간 경계를 허무는 조직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sup>42)</sup>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은 이미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과 뇌물의 구조를 끊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부정보의 유입이 나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42)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 및 한류 확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pp. 167~202;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pp. 110~151;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제7집 제1호, 2015, pp. 95~134. 참조.

기존처럼 일방적인 통제만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사상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통제할 수만은 없기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주체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밭은 여기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북한 당국의 선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정치구호라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이 세계를 앞질러 새것을 개척해 나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신문은 “부르조아적인 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에 맞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하며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은하수관현악단을 비롯한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의 장엄한 음악포성이 천지를 진감시키고 있다.”고 말한다.<sup>43)</sup> 이를 통해 모란봉악단이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 사상을 지키려는 북한당국의 사상전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모범적인 모란봉악단과 ‘모란봉식 사업기풍’

노동신문에서는 “모란봉악단이 당의 목소리로 시대와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조선의 대비약, 대변혁의 대명사”라고 말한다.<sup>44)</sup> 모란봉악단은 북한이 사회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정책과 과제를 선동하기 때문에 모범으로 설정하여 모든 사회단체와 인민들이 따라하게끔 만든다. 모범단체인 모란봉악단을 통해 북한에서는 ‘모란봉식 사업기풍’을 강조하고 있다.<sup>45)</sup> 북한에서 강조하는 ‘모란봉식 사업기풍’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모란봉 사업기풍’은 ‘사상투쟁열풍’, ‘창작창조기풍’, ‘속도창조기풍’, ‘사회주의 집단경쟁열풍’으로 나타나는데 북한은 그 중 특히 사상과

사회주의경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모란봉식 사업기풍’을 강조한 분야는 다양했다.

첫 번째, ‘사상투쟁열풍’은 음악이 인민이 사상성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정보유입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사상적 무기에 대한 언급은 노동신문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조국부위의 전초선을 지키는 초병도, 선반공들이나 농업근로자도, 청소년과 유치원어린이도 새로 창작되는 모란봉악단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 애국의 불을 지펴 사상적 무기가 되고”<sup>46)</sup>, “부르조아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날뿜다는 기사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은 혁명적, 전투적, 참신한 작품으로 핵폭탄보다 위협한 사상의 미싸일이다.”라고 언급한다.<sup>47)</sup>

두 번째, ‘창작창조기풍’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모든 기자, 언론인과 예술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8)</sup>

세 번째, ‘속도창조열풍’은 노동신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군인건설자들에게 불어넣어 청천강계탄식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 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등 중요한 건설장마다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49)</sup>

네 번째, ‘사회주의 집단경쟁열풍’은 보통 경제부문에 나타났다. 노동신문에서는 “모란봉악단의 노래폭탄을 통해 경제강국, 문명국건설도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으로 본때 있게 하자”고 강조한다.<sup>50)</sup> ‘사회주의집단 경쟁열풍’의 첫 번째 사례는 농업이다. 모내기전투에서 집단적 경쟁열풍이

43) 『노동신문』 2013년 7월 6일.

44) 『노동신문』 2015년 1월 1일.

45) 리은성, “주체적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올려려진 장쾌한 명작포성.” 『조선예술』 2014년 11호, p. 23.

46) 『노동신문』 2014년 11월 25일.

47) 『노동신문』 2014년 5월 14일, 10월 7일.

48) 『노동신문』 2014년 9월 13일.

49) 『노동신문』 2014년 12월 29일.

50) 『노동신문』 2014년 5월 11일.

강조되었는데, 모란봉악단의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이며 '혁신창조의 열쇠는 집단적 경쟁열풍'에 있다고 한다.<sup>51)</sup>

두 번째 사례는 상업 부분이다. 로동신문에서는 2003년 위대한 장군님이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하여 “앞으로 평양화장품공장은 신의주화장품공장과 질 경쟁을 하여 화장품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sup>52)</sup>는 지적을 다시 새기며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강조했다. 얼마 전 김정은도 글로벌 명품브랜드와 비교 하면서 국산 마스크라 질이 낮음을 인정하며 신의주와 평양화장품의 경쟁을 부추겼다. 인민들의 높아지는 수준에 대응하여 김정은이 창조정신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모란봉악단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지 문화예술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의 음악정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이다. 김정은은 신작음악회를 통해 모란봉악단을 확실한 모범의 사례로 만들었다. 모란봉악단은 당의 정책을 반영한 노래를 창조하여 김정은의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 전달하고 음악정치의 성과를 평가받고자 했다.

## V. 결론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음악정치로서의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모란봉악단은 공연 때마다 각기 다른 노래와 무대 배경, 형식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정회 공연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신작음악회는 이전의 공연과 다르게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곡으로만 구성되어있으며, 북한의 특정 행사 성격이 아닌 신곡에 초점을 둔 공연이기에 분석하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2014년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에서 살펴본 신작들은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크게 네 부분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에 대한 찬양과 충성맹세를 담은 곡, 둘째, 당의 정책을 반영한 곡, 셋째, 북한체제 결속력 향상을 위한 곡, 넷째, 북한의 역사 속에서 혁명 투쟁을 상기시키는 곡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통치 정당성과 사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김정은의 현지지도의 내용을 신작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신작음악회 공연의 첫 번째 의의는 모란봉악단의 신곡에 당 정책을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현지지도 내용이 신곡에 그대로 담겨있으며 특히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곡은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의 교시를 그대로 가사에 옮겨놓았다. 두 번째는 모란봉악단의 신곡을 통해 '수준 높은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신작음악회에서 새롭게 창작된 신곡의 가사와 노래의 형식부분과 더불어 무대연출 등에서 보인 민족성과 대중성은 북한이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작음악회 공연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적 평가를 보면 모란봉악단을 '창조열풍의 선두이자 사회의 모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모란봉악단이 북한사회에서 인민들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정은의 음악정치가 모란봉악단을 통해 잘 구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전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음악포성'이라 표현할 만큼 모란봉악단을 통한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

51) 『로동신문』 2014년 5월 27일.

52)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은 물론 북한 정치와 문화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서울: 선인, 2014.
- \_\_\_\_\_,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_\_\_\_\_, “모란봉악단과 새세기의 요구.” 『북한』 2012년 7월호.
- \_\_\_\_\_, “모란봉 악단, 김정은 시대를 말하다.” 『북한』 2013.2월호.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봄호 통권 제180호, 2014.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북한학보』 제39집 제2호, 2014.
- \_\_\_\_\_,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10.
- \_\_\_\_\_,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봄플러스, 2011.
- \_\_\_\_\_,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제7집 제1호, 2015.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 김수민·한승호,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평화학연구』 제14권 제4호, 2013.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 배인교,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3호, 2013.
- 배인교, “북한음악과 민족음악 :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8호, 2011.
-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2.
- 임경화, “북한 노래의 탄생-사회주의체제 형성기 인민가요 성립 고찰.” 『북한연구학회』 제15권 제2호, 2011.
- 이선애, “김정은 시기 모란봉악단 공연활동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우영, 『북한문화, 돌이면서 하나인 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양정훈, “북한통치체제의 속성과 문화예술.” 『통일전략』 제9권 제3호, 2009.

- 이현주, “선군사상과 정치선정을 위한 김정일의 음악정치.” 『북한』 제444호, 2008.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4.
- 전영선,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제1호, 2007.
- \_\_\_\_\_, “김정은의 문화정치.”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4.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나라경제』 제14권 제10호, 2012.
- 최영애, “북한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6호, 2011.
- C. V. James,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 기원과 이론』, 서울 : 녹진, 1990.

『조선예술』 2014년 11호, 2015년 1호.

『조선신보』 2012년 7월 12일.

『로동신문』 2013년 6월 3일, 2013년 7월 6일, 2013년 8월 22일, 2014년 5월 11일, 2014년 5월 14일, 2014년 5월 17일, 2014년 5월 27일, 2014년 6월 6일, 2014년 6월 28일, 2014년 7월 24일, 2014년 8월 28일, 2014년 9월 13일, 2014년 9월 15일, 2014년 9월 23일, 2014년 10월 7일, 2014년 11월 25일, 2014년 12월 29일, 2015년 1월 1일, 2015년 6월 12일.

『조선중앙통신』 2014년 6월 5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선군13경 ‘철령아래 사과바다’, 고산과수농장은?” 『통일신문』 (온라인) 2015년 6월 12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21> (검색일 : 2015.06.12).

ABSTRACT

Implication of Moranbong band's "New Music Concert"

Kang, Dong-Wan(Dong-A University)·Moon, Da-Hye(Ewha Womans University)

Kim Jung-Eun has been implementing 'Open music politics' through Moranbong band. The band was formed in July 2012 by Kim Jung-Eun and they appeared at important events and anniversaries after their extraordinary performance. Now they became the 'Role Group' of North Korean Arts. 'New Music Concert' was a notable performance given on September 2014. The Concert was only composed of songs which were written in Kim Jung-Eun's era and it had special features that did not celebrate a particular event. It shows that we can clearly see a glimpse of Kim Jung-Eun's era through the songs and concert performances of the 'New Music Concer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new songs which were performed at the concert and find the implications.

The study is looking for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new songs and the concert performances and to link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implications. Performed song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parts. First, songs that contain praise and pledge allegiance to Kim Jung-Eun. Second, songs that reflect the party's policy. Third, songs that improve the solida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Finally, songs that remind people of the revolutionary struggle in North Korean history. Through these categories, the concert intends to emphasize Kim Jung-Eun's governing legitimacy and thought.

Keywords : Moranbong Band, Kim Jung-Eun, North Korea, New Release Concert, Musical politics

투고일 : 2015년 06월 29일, 심사일 : 2015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05일